

제4차 한국인삼약초산업 전략화 세미나

금산 인삼 산업의 세계화 전략 방안
양 계 진 교수 / 중부대학교 한약자원학과

금산인삼산업의 세계화 전략 방안

중부대학교 한약자원학과 교수

농학박사 양계진

☎ (041) 750-6721

e-mail : kjyang@joongbu.ac.kr

한국의 대표적인 산물로서 그 약효가 뛰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고려인삼(Panax ginseng C. A. Meyer)은 최근 북미삼(화기삼)의 선전전략(Cooling Effect)으로 인하여 세계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삼의 성가는 여전하며 외국삼보다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인삼은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지역특이성이 매우 큰 식물로서 특정지역(또는 환경조건)에서만 성장하는 식물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식물체에 축적되는 성분은 식물체가 성장하고 있는 환경조건(토양 및 기상조건)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고려인삼의 약효가 외국삼보다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조건이 고려인삼의 성장에 최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천혜의 산물인 인삼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그러나 WTO체제하의 우리나라 농산물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인삼산업이 크게 위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금산은 환경조건이 인삼생육에 적합하여 옛부터 인삼재배가 성행하여 인삼주산지로 알려져 왔고 백제삼의 전통을 잇는 인삼유통의 중심지이다. 금산인삼인 “금중”은 육질이 단단하여 삶아도 잘 터지지 않는다하여 타지역의 인삼보다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오늘날도 금산은 우리나라 인삼의 80%이상을 유통시키는 대단위 인삼유통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혁신적인 인삼유통체계를 갖춘 “인삼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인삼 유통 중심지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또한, “2006년 금산인삼EXPO”를 개최하여 금산인삼의 세계화 및 인삼산업활성화를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금산인삼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금산은 인삼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인삼연구소”가 없고, 금산인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인삼박물관”이 미미하여 금산인삼이 국내외적으로 대중화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우리나라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내의 인삼소비가 감소하여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고, 홍콩 등의 동남아시아에서 북미삼의 판매증가로 우리나라 인삼의 수출실적이 매우 낮다. 1990년말에 인삼수출액이 약 8,000만\$에서 2002년에는 약 7,000만\$로 할가하였고, 이 결과 홍콩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13%(금액기준)수준에 있으며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국내외에서 식품안정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인삼의 잔류성농약에 관한 문제는 국내소비감소 및 수출부진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해외(중국)경작에 따른 원료삼 수입 및 제품원료용 엑스 수입, 밀수인삼의 불법유통, 유통체계의 문제점, 생산비증가에 따른 가격상승, 수출용 제품의 획일화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품질하락과 덤핑은 인삼의 성가를 실추시키고 있다. 따라

서 저가의 중국산인삼과 품질경쟁력이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인삼과의 경쟁에서 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므로 금산인삼산업의 세계화를 위하여 금산인삼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지향적 금산인삼발전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삼은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대표적인 특산물로 중국과 교역하였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세계최고의 상품임에 틀림없다.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수가 약 2만호정도이고 200개이상의 인삼가공업체 및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수출산업으로 농산물중 단일품목으로 수출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삼이다.

표 1.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있어서 인삼의 비중

구 분	농축산물(A)	인 삼(B)	구성비(B/A)
재배농가수(천호)	1,354	19	1.4
재배면적(천ha)	2,089	13	0.6
수출액(백만\$)	1,370	75	5.5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2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있어서 인삼은 우리나라 농축산물 재배면적의 0.6%, 재배농가수의 1.4% 정도이나 수출액에 있어서는 전체농축산물의 5.5%를 차지하고 있다.(표 1)(2001년도) 그러므로 인삼은 앞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중 집중육성대상작물로 선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WTO체제 하에서도 보호받아야 할 품목중의 하나로 선정되어야 한다.

표 2. 전국대비 금산군 인삼생산현황

(단위 : 호, ha, 톤)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전국	금산	전국	금산	전국	금산	전국	금산	전국	금산
농가수	22,170	4,762	24,702	5,177	23,011	5,214	19,310	4,760	23,430	3,835
재배면적	10,349	829	11,561	948	12,445	1,018	13,018	1,008	12,873	867
생산량	11,478	1,083	14,500	1,561	13,664	1,050	13,215	1,632	16,662	1,043

자료: 금산군, 2002

금산군의 인삼재배현황을 살펴 보면(표 2), 전국대비인삼재배농가수는 1998년에 21.5%에서 2001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02년에 16.4%로 감소하였다. 인삼재배면적은 1998년에 8.0%에서 일정한 재배면적을 유지하였으나 2002년에 6.7%로 감소하는 추세이었다. 그리고 인삼생산량의 경우도 1998년(9.4%)부터 약간의 생산량증가를 보였으나 2002년에 6.3%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금산군이 인삼재배로 유명하지만 연작장해가 심하여 적지재배를 해야 하는 인삼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동경작을 하기 때문에 금산군의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중도폐지율이 높고 이동경작에 따른 제경비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인삼산업의 위축, 잔류성농약과 제품의 개발 미흡으로 인한 수출부진이 금산의 인삼산업의 침체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인삼의 연작장해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인삼의 주산지로서의 과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대규모인삼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인삼생산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표 3. 충청남도내 5개지역 특화작목과 인삼의 농업비중

구 분	딸 기	토마토	구기자	백 합	국 화	인 삼
재 배 면 적 (ha)	1,470	438	146	19	60	1,550
소 득 (억 원)	500	220	29	13	39	1,040
전국수출총액(억원)	6	15	-	35	-	1,700

자료: 금산군농업기술센터, 2002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5개 특화작목과 인삼의 경제성을 비교한 결과(표 3), 인삼이 5개 작목중에서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인삼의 재배면적은(1,550ha) 딸기의 재배면적(1,470ha)보다 약간 많았으나 소득은 딸기의 2배, 수출총액은 무려 283배나 많았다. 인삼의 경제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바, 인삼을 충청남도 대표적 작목으로 선택함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금산군을 우리나라의 인삼재배적지로 선정함으로써 고품질청정인삼재배를 선도하는 인삼생산주산지 즉, 인삼의 고장의 명성을 유지케 해야 할 것이다.

표 4. 세계 주요국의 인삼 재배면적과 생산비 현황

구 분	한 국	중 국	미 국	캐나다
재배면적(ha)	0.3	3	3	3
생산비(원/kg)	21,317	3,590	6,444	8,604

우리나라의 재배면적은 0.3ha로 중국, 미국, 캐나다와 비교하면 1/10수준이나, 생산비는 21,317 원/kg으로 다른 3개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특히 중국은 값싼 노동력으로 인하여 생산비가(3,580원/kg)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현재 우리나라의 인삼재배는 연작장해 때문에 새로운 재배적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동경작을 하고 있어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상승을 유도하여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다. 생산비의 증가는 원료삼의 가격 상승과 수출경쟁력 감소를 야기시켜 국내의 인삼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비 절감 재배법 개선을 위한 연구 및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연작장해에 대한 대책으로 논삼재배가 성행하고 있으나 논삼재배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고품질청정우량인삼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고품질우량인삼생산을 위한 재배법확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금산군에는 인삼을 전담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고부가가치를 지닌 인삼의 종합적 연구를 전담하는 “인삼연구소”를 빠른 시일내에 설립하여 혁신적인 인삼재배기술의 modeling을 제시하는 것이 금산군의 인삼산업세계화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세계 주요국의 인삼 생산 현황

(단위 : 톤)

연 도	한 국	중 국	미 국	캐나다	합 계
1987	14,424	13,396	2,356	456	30,632
1997	12,259	19,000	1,080	2,950	35,289
증감률(%)	△15.0	41.8	△54.2	546.9	15.2

세계 주요국가의 인삼생산량을 살펴 보면(표 5), 한국은 1987년도(14,424톤)에 비하여 1997년(12,259톤)에 15.0%감소하였으나 캐나다는 10년동안 546.9%나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54.2%의 생산량 감소를 보여 한국과 미국의 생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인 반면에, 중국과 캐나다는 인삼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최근 인삼의 주소비지인 동남아시아에서 북미삼(화기삼)의 "Cooling Effect"라는 선전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고려인삼보다는 값싼 북미삼(화기삼)의 선호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품질화를 꾀하는 북미삼(산양삼 및 야생삼)의 소비증가도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중국은 최근에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북미삼의 재배면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인삼시장에 중국산 북미삼의 수출물량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것이다.

표 6. 홍콩의 인삼 수입 현황

(단위 : 톤, 백만\$)

구 분	2000		2001		2002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한 국	107	25.8	241	24.6	83	12.9
중 국	1,719	23.2	1,573	21.6	2,347	30.4
미 국	1,143	70.8	527	28.3	232	7.3
캐 나 다	1,411	46.4	2,687	49.5	2,547	51.1
기 타	55	5.8	103	2.9	65	6.2
합 계	4,435	172.0	5,131	126.9	5,274	107.9

홍콩인삼시장에서 한국은 2000년에 107톤, 25.8백만\$에서 2002년에 83톤, 12.9백만\$로 각각 22.4%, 50%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2000년에 1,719톤, 23.2백만\$에서 2002년에 2,347톤, 30.4백만\$로 각각 138.1%, 131.0%, 캐나다는 2000년에 1,411톤, 46.4백만\$에서 2002년에 2,547톤, 51.1백만\$로 각각 180.5%, 110.1%로 홍콩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었다. 2002년도에 한국의 인삼수출량은(83톤) 캐나다(2,547톤)의 3.3%에 불과하여 홍콩시장은 이미 북미삼(화기삼)이 석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북미삼의 "Cooling Effect"선전에 대하여 북미의 인삼연구가들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오히려 한국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며 제품의 다양성을 꾀하고 고품질화 및 생산비절감 인삼생산을 위한 재배법 개선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1. 금산인삼산업의 문제점

□ 금산인삼을 대표할 수 있는 고품질인삼이 없다.

- 금산을 대표하는 인삼브랜드가 없음 - 옛날에는 "금종"이라는 금산 고유의 금산인삼이 있었으나 관심부족으로 현재는 발견할 수 없음
- 연작장해에 따른 이동경작으로 금산군내의 인삼경작면적이 줄어들고 있음
- 특정지역에만 자생하는 인삼의 특성에 따른 금산고유의 인삼인 "금종"의 재현이 시급함
- 금산고유의 인삼제품 개발 미흡(곡삼, 반곡삼, 태극삼 등)

□ 금산군의 “인삼특구화”를 위한 복합적 관광자원화(Multile-Sight seeing & Marketing)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인삼에 관한 군민의 열정이 부족하여 우수한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함
- 현재 인삼판매에 국한된 관광객 유치는 특정한 인삼판매시기에만 관광객을 유치하므로 연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함
- 도로망의 확충은 인삼산업의 활성을 의미하므로 철도 건설은 관광객 유치와 물량이동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
- 관광자원화는 종합적(유적지관광, 인삼판매(물류센터, 인삼도매상가, 기능성식품 또는 건강식품), 연구소건축, 생산단지건축 및 체험프로그램, 인삼을 이용한 식음료(또는 전문식당), 숙박시설, 체험용 인삼숙박농가(숙식을 포함하는), 야시장(노점포함), 인삼제, 박물관 및 전시장, 문화행사)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장기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금산군과 타지역(무주군, 대전시 유성구)간의 관광자원 연계가 부족함
- 물류센터에 집중되어 있는 인삼관련시설(물류센터, 인삼박물관, 인삼연구소)로 인하여 금산군전체의 균형적 관광자원화를 꾀할 수 없음
- 금산군의 인삼 역사를 볼 수 있는 박물관의 건설이 시급함
- 금산인삼산업의 현황을 볼 수 있는 전광판과 같은 시설이 없음
- 인삼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삼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위한 품질인증을 할 수 없어 수출에 많은 애로가 있음

□ 고품질청정인삼생산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

- 잔류성농약으로 인하여 인삼제품의 수출이 어려운 실정임
- 인삼전용농약 개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저독성농약 및 천연물을 이용한 무공해농약 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흡함
- 금산군의 고품질인삼생산을 위한 대규모면적의 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생산비증가 및 생산량 불안정으로 가격변동이 심함
- 생산비절감재배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인삼가격상승을 부추켜 수출경쟁력이 매년 악화됨
- 대규모인삼생산단지 조성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새로운 마인드 부족
- 우수한 특성을 지닌 “금종”의 세계화를 위한 품종 판매 및 재배법(인삼자재포함) 수출전략 부재
- 고품질청정인삼생산을 위한 지방단체 및 정부지원이 전무함

□ WTO협상체결시 인삼수입이 확대되면 금산의 인삼세계화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 UR협상이후로 농산물무역자유화와 관세인하조치에 따른 인삼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WTO협상이후로 국내 인삼수입은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국내인삼재배가의 중국현지 재배인삼의 수입 또는 제품원료용 엑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외국산 인삼류의 수입이 늘어남
- 국내 인삼가격상승과 다양한 제품개발 미흡은 세계인삼시장이 크게 신장함에도 불구하고 인삼수출 감소

□ 정부내의 인삼을 관리하는 단독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농산물협상뿐만 아니라 수출입업무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아 인삼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인삼산업에 있어서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 정부내의 인삼관련업무는 농림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청으로 구분되어 부처간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상호의견조정이 쉽지 않아 WTO와 같은 중대사에 신속하고 일치된 견해를 제시하는데 문제가 있음
- 인삼관련법제정시 부처간의 이해에 따라 이견이 제시되는바 어느 부처에서 법을 제정하는가에 따라 인삼산업의 발전방향이 달라지게 됨
- 중국의 경우 인삼을 의약품으로 취급하여 인삼수출을 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없음
- 현재의 농림부내의 조직으로는 침체되어 있는 인삼산업을 회복할 수 없음
- 생산자단체의 획일적 통합으로 인한 인삼산업위축 초래
- 타작물과의 형평성에 따른 보상제도는 고부가가치를 지닌 인삼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인삼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음
- 고품질청정인삼재배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전무함
- 한국을 비롯한 수출대상국들의 잔류성농약기준에 대책이 미흡함

□ 인삼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금산군에 인삼을 전담하는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 금산인삼의 국제적 인증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금산인삼브랜드 부재로 인한 국가경쟁력 상실
- 잔류성농약으로 인한 수출 감소
- 생산비증가로 인한 인삼가격 상승
- 연작장해로 인한 이동경작으로 금산군내의 재배면적감소 초래

- 야시장(노점상포함)의 활성화로 새로운 국제적 관광자원 확보
- 체험적 인삼숙박농가의 육성으로 새로운 개념의 관광자원 확보

□ 금산군의 복합적 관광자원화(Multile-Sight seeing & Marketing)

- 금산군의 “인삼특구화”에 따른 인삼관광자원화
- 철도건설에 따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인삼물량이동 극대화로 금산군의 복합적 관광화
- 복합적 인삼관광자원화 - 종합적 인삼산업현황(금산군인삼현황 display센터), 관광(인삼관련 유적지, 인삼박물관), 인삼에 대한 종합적 이해(금산인삼연구소 견학), 체험적관광(대단위 청정 고품질인삼재배현장 견학 및 체험), 판매 및 유통현황관광(인삼물류센터), 음식 및 숙박(전통인삼먹거리와 숙박을 연계한 장소, 체험적 인삼숙박농가)
- 세계인삼EXPO개최로 인한 금산군의 세계화
- 금산인삼의 역사와 유래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 형상물 조형, 유적지 조성, 지역별(거리별) 인삼특성화 개발, 금산군전체의 인삼관광자원화(관광객의 체류기한 연장에 따른 관광수입 증대)
- 금산군의 복합적 관광자원화와 연계한 타지역(대전 유성온천, 무주구천동)과의 관광산업 확대

□ 금산군내의 인삼청정재배단지 조성

- 인삼전용농약(저잔류성, 저독성)개발- 자연친화성농약(천연물 이용) 개발, 잔류성농약 기준 확립
- 인삼전용자재 개발 - 반영구적 및 재사용가능한 자재 개발
- 금산인삼의 고품질화를 위한 대단위면적의 청정재배단지 조성 - 일정한 재배면적 확보에 따른안정적 인삼생산량을 물량확보 및 가격안정화 효과
- 고품질청정인삼생산을 위한 통합적 생산 및 관리system 도입
- 고품질청정인삼생산의 modeling화 - 관광자원화 및 국내외적 고품질청정인삼생산 modeling화
- 임간재배 및 산양삼 생산기반 확충 및 산업화 전략 구축
- 고품질청정인삼 생산기술 수출화 전략

□ 지역단체장(금산군수)의 품질인증제 도입

- “금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품질 인증제 도입
- 육성된 신품종 인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품질인증제 도입
- 원료삼 및 수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품질인증제 도입

- 인삼가공제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품질인증제 도입
- 원산지 표기 및 제품원료용 인삼추출액(원료삼포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품질인증제 도입

□ WTO체제하에 전략품목으로 인삼 당위성

- 고려인삼은 우리나라의 천혜의 산물임
- 고려인삼의 성가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음
- 고려인삼에 대한 성가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략품목화하는 것은 당연함
-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산물사업(프랑스의 포도주산업, 캘리포니아의 오렌지산업)은 각나라마다 권장사업이고 전략품목임
- 고려인삼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품목화 지정은 당연함 - 고품질청정인삼생산기술, 품종 및 제품 수출을 포괄한 인삼산업의 global화와 북미삼(화기삼)의 선전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품목화는 당연함

□ 인삼산업법의 개정에 따른 인삼진흥법 제정

- 고려인삼의 성가 재창조를 위한 기존의 인삼산업법의 폐지
- 고품질청정인삼재배를 위한 강력한 정부지원제도 도입 - 지원금에 대한 환급금은 이윤창출에 따른 차액의 일부를 환급금으로 함
- 천재지변에 의한 보상제도 도입 - 일반 농산물과 다른 보상체계 확립
- 인삼검사기준의 재확립 및 검사기관의 단일화
- 제품원료용 수삼 및 엑스에 대한 검사기준확립 - 원산지표기 및 품질인증제도입
- 인삼의 특성(농산물, 약용과 식용)에 따른 여러 관련부처 업무사항 단일화를 위한 법제정
- 인삼생산자단체 부활

□ 정부의 인삼관련부처의 단일화

- 현재 인삼관련부처는 농림부(생산관련), 보건복지부(의약품 및 식품관련) 및 식품의약품(의약품 및 식품관련)으로 부처간의 업무처리의 중복 및 지연으로 효율성이 떨어짐
- 인삼산업의 세계적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한 부처의 단일화 당연함
- WTO협정시 각 나라의 수출입규제에 대한 일괄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부처의 단일화
- 우리나라 천혜의 산물인 “고려인삼”의 성가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정부부처 단일화 필요성

□ 농림부내의 “인삼과” 신설

- 인삼산업 기반확충 및 세계화전략을 위하여 정부부처간 업무를 총괄하는 단독부서 신설

- WTO체제하의 세계 각국의 강력한 수출입 제한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모든 인삼산업업무를 총괄하는 단독부서 신설
- 고려인삼의 종주국으로서 세계각국의 인삼산업 modeling을 제시할 수 있는 단독부서 신설
- 새천년의 세계인삼산업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think-tank화하는 단독부서 신설

□ 금산 인삼시험장 건립 당위성

- 인삼은 수출경쟁력있는 농작물중 유망 작목이고 금산은 인삼의 고장임
- 인삼의 종주지인 금산에 시험장을 설립하여 앞으로 건립될 물류센터와 연계 생산에서 가공·유통에 이르는 방대한 분야의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실용화 연구 착수
- 인삼관련 산학연 컨소시엄구성과 산학연 연구기능 강화 용이
 - 학계 : 충대, 중부대, 건양대
 - 기관 : 인삼세계화팀, 군인삼약초과
 - 산업 : Bio벤처
- 세계인삼 총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국제교역시장 점유율도 35%로 타농산물보다 월등히 높은 산업적 위치에 있음
- 국내 농축산물 수출액중 인삼이 12%(1.4억불)로 최고의 수출농산물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
- 건강보조식품으로 뿐만아니라, 한약 또는 의약품 원료로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작목임
- 인삼은 도내 5개 지역특화시험장 설치 작목보다 재배면적 소득, 수출면에서 우위에 있고 WTO 체제이후 우리나라 수출농업을 선도할 대체작물로서 생산기술, 가공상품화, 수출경쟁력 확보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기구설치가 시급하다고 사료됨
- 충청남도는 금산을 중심으로 전국생산량의 20%, 백삼 및 가공원료수삼의 80%가 유통되고 있는 인삼종주지로서 인삼재배농가의 현장애로기술 타개를 위한 시험연구 및 지도에 대한 요구 급증
- 인삼시험장 설립에 대한 인삼재배농가들의 건의
- 전남, 전북, 충북 및 강원도 지역에서 인삼에 대한 현지도도 요청 및 방문
- 인삼은 수출 우위작물로서 국가차원의 국책연구소가 있어 약리, 약효 및 효능의 일관된 연구가 필요하고, 경작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인삼 주재배지의 재배, 품종, 가공상품 및 성분 연구를 지자체에서 전담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

인삼의 가치는 매우 높기 때문에 금산의 인삼산업은 전망이 밝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국내의 경기침체와 국제적 수출부진으로 인삼산업이 위축되어 있으나 모두가 지혜를 모아 이에 대처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금산인삼EXPO”를 통하여 금산인삼을 세계에 알리고 인삼물류센터를 건립하여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유통으로 유통마진을 줄이며, 고품질청정인삼을 생산하여 제품의 안정성(잔류성농약에 의한 수출감소방지)을 증가시키도록 한다면 금산인

삼이 수출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금산을 "인삼관광특구"로 지정하여 복합적 인삼관광지 (Multile-Sight seeing & Marketing)로 변모시켜야 하며 고속도로와 아울러 철도의 신설이 금산의 인삼산업세계화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삼연구소"를 설립하여 "금종"의 재현과 혁신적인 인삼재배기술을 확립하여 고품질청정인삼을 생산하고, 대규모의 인삼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인삼생산의 안정화 및 관광자원화를 유도하며 인삼생산관련기술의 해외산업화전략을 추구함으로써 금산인삼의 세계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산군민의 의지이다. 금산인삼의 가치를 높이고 금산의 인삼관광자원화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금산군민의 화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금산인삼에 대한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단체장의 품질인증은 필수적이며 금산군민이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인삼의 고장인 금산에 "인삼연구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금산인삼의 세계화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출발해야 하며, 전근대적인 생산 및 유통은 금산인삼산업의 위기만 초래할 뿐이다. "인삼연구소"의 설립을 위하여 지역단체장의 결단이 필요하며 금산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를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금산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제교역과 한국인삼산업의 대응과제 성명환 한국고려인삼연구회 2003
- 금산군 인삼통계자료 2003
- 21세기 인삼산업의 전망과 발전과제 서종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2006금산세계인삼EXPO 금산군 2003
- 인삼관련산업의 시장실태분석과 경쟁촉진방안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사무소 2001
- 인삼수출현황 및 국가별실태조사 금산군농업기술센터 2001